『中國學』第66輯 (2019.03)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19.66.66.2
pp.021-042 ISSN : 1229-9618

‘중국어 원지음 표기와 한국어 정체성 보존’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및 제언*

— ‘수렴’과 ‘분기’의 변증법적 관계설정을 토대로

전국조**

【목 차】

1. 머리말
2. 몸말
   1) 수렴: 근대 국민국가 형성의 주요 기제로서 ‘국어’
   2) 분기(1): 문화, 텍스트, 언어
   3) 분기(2): 대중문화와 포스트콜로니얼리즘
4. 맺음말

【초록】

어떤 주장을 두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종합하는 일은 인문학의 사회적 책무다. 그 책무를 다하려는 이 작업은 따라서 ‘중국어 원지음 표기와 한국어 정체성 보존’이라는 구체적 문제에 접근하는 데 어떤 방법이 더 타당할지를, 또 이를 토대로 어떤 제언이 가능할지를 이론적으로 탐색한다. 주된 방법론적 틀은 수렴과 분기의 변증법적 관계설정으로 삼는다. 궁극적으로는 문화적 고정성과 유동성의 모순을 한쪽으로 환원·포섭하려는 이론 생산 및 논의 주체의 욕망을 들여다보려 애씀과 동시에 그것이 생성시킬 벡터의 정당성은 다름 아닌 대중문화의 향유 주체인 대중과 일상적 언어생활의 영위 주체인 언중의 억눌린 욕망이 해방되는 장을 상정할 때 비로소 획득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어 놓으면서 또 다른 비판적 종합을 기다린다.

【키워드】 중국어 원지음 표기, 한국어 정체성 보존, 수렴과 분기, 변증법적 관계설정, 문화연구, 언어, 텍스트, 대중문화, 포스트콜로니얼리즘

---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2043693)

**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HK연구교수 (gukjojeon@daum.net)

1. 머리말

작년 말, 한 학술대회 발표문[1)]의 토론내용으로 급히 만들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2)]를 소개하면서 시작해 봐야 될 것 같다. 그것에 이 작업의 문제의식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 선생님, 발표자료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어문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얘기에 한계도 분명히 있겠지만 문화 공부를 해 온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재구성한 것, 앞으로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면 재미있을 듯한 것, 또 그와 더불어 질문 하나만 드렸으면 합니다.
>
> 1. 발표문에서 볼 수 있었던 건 '고정성fixity과 유동성fluidity 간의 (변증법적) 관계'입니다. 보통 마르크스주의에서 자본의 특질을 이런 문제틀에서 보곤 합니다만 그것을 선생님 발표문에서 볼 수 있었던 건 아주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까닭은 선생님 글에서 여러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본문 5쪽의 '2. 한자어의 분류와 독음' 시작 부분에서 "중국에서 유입된 한자어가 한국 내에서 외래어로 정착된 형태"를 네 가지로 구분하시는 대목입니다. "(1)이미 국어화한 보통명사, (2)고유명사(인명, 지명 따위), (3)새로운 개념어,(4)그 밖에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 뎁니다. 이를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1)이미 국어화한 보통명사: 동화-고정성(안정화), (2)고유명사(인명, 지명 따위): 병용(봉합)-유동, (3)새로운 개념어: (중국) 현지 맥락화-유동, (4)그 밖에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한국) 현지화-고정" 정도가 될 것 같고, 이를 9쪽의 표와 다시 연결, '인식적 거리(감으)로서 타자화의 정도'라는 측면에서 그 정도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차례대로 놔보면 (3)-(2)-(4)-(1)로 정리될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3)과 (2)의 순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 (2), 특별히 '인명'의 경우 일상생활의 맥락화를 통해 '주체성을 드러내(야 하)거나 타자성을 존중하는 정도'의 문제를 좀 더 고민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
> 2. (중국어의 한글 표기를 한국한자음 아니면 중국원지음으로 해야 한다는 양쪽의 팽팽한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 9쪽의 표를 보면 양쪽의 주장 모두 고정과 유동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고정, 달리 말해서 안착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한국한자음 표기를 주장하는 쪽은 '**합合**'으로, 중국원지음 표기를 주장하는 쪽은 '**분分**'으로 향한다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제가 궁금한 점은 '이 욕망, 곧 움직이는 것을 고정하고 싶어 하는 이 욕망은 대체 어디서 비롯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언어 사용 주체가 일상생활의 층위에서 오랫동안 써 오며 표기방식을 정착시켜 온 경우인 (1)하고 (4)와는 달리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2)와 (3)이고, 이론이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경우 또한 바로 이 둘인 것 같은데, 이 경우 '이론(생산 및 논의 주체)의 욕망과 그 당위성은 어디서 비롯해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로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1) 이지영, 「한국에서의 중국어 독음 표기」, 『한국어의 정체성 보존을 위한 연합학술회의: 언어와 문자, 그리고 소프트파워』, 한양대학교 소프트파워인문학연구소 및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HK+한자문명연구사업단, 2018.12.08, pp.4-12.

2) 원래의 것을 조금 수정·보완한 것이다. 진하게 해 놓은 '합'과 '분'은 앞으로는 '수렴'과 '분기'로 대체하도록 한다. 별다른 이유는 없다. 다만 전자의 쌍에 대해 마땅한 영어 번역어를 고르기 힘들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작업에서 각 쌍의 변증법적 관계는 물론 두 쌍 또한 같은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 위 첨자 글쓴이. 앞으로 같은 처리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한다.

상기 인용을 이 작업의 주제와 엮어 생각해 볼 때 가장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고민하고, 이에 필요한 이론적 탐색을 수행하는 일일 것이다. ‘중국어 원지음 표기와 한국어 정체성 보존이라는 문제에는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필요한 제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따라서 이 작업의 주된 목적은 중국어를 원지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한국어 정체성 보존에 합당하다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거나 하는 식의 주장[3]을 펼쳐 기존의 논의를 확대재생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주장을 내어 놓기에 앞서 그 문제를 좀 확장된 시야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도와줄 법한 여러 이론적 흐름을 살펴보는 데 있다. 더욱이 그 목적이 앞서 언급된 것처럼 어문학이 아니라 ‘문화연구’라는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달성될 것이라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기존의 분과학문체제 내에 여전히 강력하게 버티고 서 있는 학제 간 장벽을 할 수 있는 만큼 허물면서 간·탈·초학제적 연구를 지향해야 한다는, (인문)학계 전반에 대한 역사사회적 요구에도 부응하기 때문이다.

이 시대적 요청을 따르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은 ‘수렴’과 ‘분기’의 변증법적 관계설정이다. 이 틀에서는 운동이자 흐름인 문화 곧 유동성·분기성·다양성을 특질로 하는 문화에 고정성·수렴성·획일성을 부여하려는 욕망, 그 욕망을 통해 생산되는 지식과 그것이 복무하게 되는 특정 권력의 발생·유지·소멸 또는 상품으로서 권력의 생산·소비·가치소진, 그것들이 관여하는 문화 향유 주체의 실천, 또 이 모두가 한데 얽혀 만들어 내는 사회적 관계 같은 것을 들여다보는 데 보탬이 될 만한 이론적 흐름을 살펴본다. ‘수렴’과 관련해서는 근대 국민국가 형성 및 전개의 주요 기제로서 한·중·일의 국어 개념 형성 과정을 추적하고, ‘분기’와 관련해서는 첫째, 문화·텍스트·언어에 대한 문화연구적, 더 구체적으로는 유물론적 접근을 시도하고, 둘째, 한국 사회 내 대중문화 관련 논의와 그것에 대한 이해를 도울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을 소개한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변증법적 접근의 문제를 ‘대중이자 언중으로서 우리 자신의 욕동’과 ‘이론 생산자로서 우리 자신의 욕망’의 관계로 풀어본다. 그 욕망이 생성시킬 벡터의 정당성은 우리 자신의 억눌린 욕망이 해방되는 장, 우리의 욕동이 활개칠 수 있는 사회적 장을 상정할 때 비로소 획득될 수 있다는 주장, 하지만 이 주장조차 ‘욕동 부재의 상황’, 곧 ‘실천의지의 부재라는 그 상황’의 수반을 반드시 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어 놓으면서.

---

3)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 성과가 나와 있다. 그 중에서도 다음의 두 논문이 꽤 상세한 논의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엄익상, 「중국어 외래어를 원지음으로 표기해야할 이유」, 『중국어문학논집』, 제56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9.06, pp.265-279; 박영록, 「중국 한자어 원지음 표기의 문제점」, 『대동문화연구』, 제76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12, pp. 557-595. 참고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두 주장에 대해, 전자는 한국이 “분명 한자문화권”에 속하는데도 현재 한국사회에선 “한글전용세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문자로서의 한자의 역할은 이미 상당히 축소되었다”는 점, “이는 문자로서의 한글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점, 따라서 “모든 외래어를 한글로 훌륭히 적어낼 수 있을 때 문자로서의 한글의 기능은 한층 더 완전해”진다는 점을, 후자는 “첫째로 외래어와 원지음주의란 상호 충돌하는 모순적 개념이라는 점, 둘째로 언어들의 관계 및 각 개별 어휘들은 개별적 특성이 강한 것이므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 셋째로 문화주권의 측면에서 중국어 원지음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문화주권이란 여러 가지 측면의 정의가 있을 수 있으며, 문화주권을 문화생산력이라 볼 때 원지음주의보다 기존의 관습음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더 생산적이라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 각각 pp.270-271, p.557.

2. 몸말

1) 수렴: 근대 국민국가 형성의 주요 기제로서 '국어'

'중국어 원지음 표기와 한국어 정체성 보존'이라는 주제에서 중국어, 한국어 할 것 없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국어'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중·일의 '국어'를 근대 국민국가 형성 및 전개의 주요 기제로 보고 논의를 진행토록 한다. 본격적 논의에 앞서 '근대 국민국가 형성 및 전개가 가능하려면 어떤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수반되어야 하며, 그 조건의 충족을 위해 동원된 것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그 조건으로는 '내부' 결속과 그 결속의 촉발 및 응집력 증대에 필요한 '외부'의 현존 또는 상정이, 이 둘의 충족을 위해 동원된 것으로는 '언문일치'와 '한·중·일' 세 나라를 비롯한 서구 열강이 한 가지 가능한 답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어의 경우는 다음의 인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 … '국어' 개념은 **일본의 '코쿠고'**의 형성 과정으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개화기부터 국민국가의 형성과정 속에서 **'국어'**를 인식하고 언어를 국민 및 국가, 민족과 동일시하려 했다는 점, 언어가 국민국가 형성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는 점 등에서 일본의 '코쿠고'의 형성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 지배하라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국어'가 본디 갖던 의미는 상실되었으며 일본의 '코쿠고'가 갖는 제국주의적인 성격은 포괄할 수 없게 되었다. … 19세기 말, 즉 개화기의 조선(또는 대한제국)은 **'탈중화(脫中華)'**라는 시대 인식 하에 근대적 변화를 겪게 된다. 이때의 국어국문운동은 **'언문일치(言文一致)'**라는 말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문명개화(文明開化)', 또는 '문명지국(文明之國)'을 이루기 위해서는 표음문자인 문자, 즉 국문(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4]

---

4) 강은진·조재형, 「'민족' 개념과 '국어' 개념의 형성 관계에 대한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제28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8.08, pp.48-49 — 강조 글쓴이. 이 대목에선 다음을 참조하고 있다. 조태령, 「근대 국어 의식 형성의 보편성과 특수성: 언어와 국민 사이의 관계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제39권, 한국언어문화학회, 2009.08, pp.81-108 중 p.95. 조선 → 일제강점기 → 해방 후 한국으로 이행하는 와중에 '국어'의 개념 또한 함께 변천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국어'라는 용어의 사용이 아닌 '국어' 개념의 형성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부연하자면 "일제강점기에 '국어'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것이 조선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조선어는 '국어'라고 불릴 수 없었고 '국어'의 자리는 일본어가 차지하게 되었다. 즉, 이때의 '국어'라는 용어가 지칭한 것은 일본어로, 조선어는 더 이상 '국어'가 아니라 주변어가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조선어를 규범화하려는 노력은 훗날 해방과 함께 조선어를 의미하는 '국어'로 집약된다." 강은진·조재형, 앞의 글, p.48, 각주 35. 한국의 '국어'라는 용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원래 '國語'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日帝가 明治維新 이후 일본 민족 내부 통일을 위해 國語라는 개념을 강조하여 썼으며 우리도 일제 때 '國語 常用'이란 구호 하에 민족어 말살과 일본어 강제 공용어화의 시절을 겪은 바 있어 이 용어는 일본 제국주의적 성격을 띤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훈민정음 해례본에도 '國語'라는 표현이 나와, 일제식 용어로만 보지 말자고 하며 또한 다민족사회가 서구의 근대 시민국가로 태어나면서 '국가 언어'(national language)라는 개념이 나타나므로 '국가 언어'의 略語로 '국어'를 쓸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민현식, 「국어과에서 한자 교육 위상의 재정립 문제」, 『先淸語文』, 제40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12.09, p.175.

그렇다면 일본의 ‘국어’(고쿠고)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역시 핵심은 ‘언문일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입)말과 글(말) 중 어느 쪽이 어느 쪽에 맞추느냐, 다시 말해서 둘 사이에서 힘은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 둘 중 어느 쪽에 힘이 더 있느냐 하는 것이다. 흔히 생각하거나 알고 있기를 언문일치라고 할 때 글을 말에 맞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일본에서 언문일치는 “메이지 20년대[1887-1896]에 특히 소설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말(입말)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지로는 “새로운 ‘문(文)’”, 곧 “표준어로서 일본 전역에서 ‘말하’도록 강제된 ‘문’”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 … ‘일본어’(국어)는 매우 새로운 개념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메이지 이후의 근대국가**에서 형성된 개념이자, 의무교육, 언문일치, 표준화라는 과정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고대에도, 아니 에도시대에도 ‘국어’ 따위는 없었습니다. 확실히 에도시대에 국학자가 ‘야마토말’을 발견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18세기 후반이고 맹아적으로 **근대의 내셔널리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5]

상기 인용에서 중요한 것은 고쿠고 개념의 형성이 ‘메이지 이후의 근대국가’에서 이뤄졌다는 점, 또 그것이 근대 내셔널리즘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특정 외부의 현존 및 상정이라는 조건 또한 수반되었어야 하는데, 근대 국민국가 일본의 입장에서 그 외부는 중국과 서구 열강이었다.[6]

> 단 메이지에 발생한 것은 그저 그때까지는 중국이 상대였는데 이제 서양이 상대가 되었다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메이지시대에는 서양의 개념이 거의 한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봉건제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에도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군현제라는 개념과 대립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주(周)는 봉건제이고, 진은 중앙집권적 군현제입니다. 메이지유신은 이런 의미에서의 봉건제를 폐지하고 군현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앞서 ‘폐번치현(廢藩置縣)’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서양사에서의 feudalism이라는 개념이 봉건제로 번역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메이지유신은 서양적 의미의 봉건제를 해체하는 부르주아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중국적인 개념[周의 封建制]으로부터의 ‘혁명’[廢藩置縣]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 중요한 것은 메이지시대의 ‘서양화’가 다른 면에서 보면 ‘중국화’[秦의 郡縣制]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7]

중국의 경우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1840-60년에 일어난 두 차례의 아편전쟁을 겪은 중국의 지식인층은 “언어통일운동”을 펼침과 동시에 “관화(官話)” 확립에 힘을 쏟게 된다.

> 많은 학자, 관리의 추진에 힘입어 1903년 청나라 정부에서 정한 학당장정(學堂章程) 에는:
> “세계 각국의 언어는 전국이 모두 일치되어 있다 … 하지만 중국 민간에서는 서로 다른 토어를 말하고 있어서 같은 省의 사람도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은 정도에 이르고 있으니 일 처리하는 데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 지금 관음(官音)으로 천하의 언어를 통일하고자 한다. 고로 사범학교와 고등소학당에서 일률적으로 국문 과목 안에 관화 과목을 부가시킨다”라고 규정지었다.[8]

---

5) 가라타니 고진, 『문자와 국가』, 조영일 옮김, 도서출판b, 2011, pp.117-120 — 강조 글쓴이.
6) 여기서 일본 특유의 에크리튀르 체제인 한자가나혼용과 그것을 통한 번역의 문제 또한 파생하지만, 다소 일본에 국한된 문제이기도 한 탓에 추후 연구과제의 가능성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7) 같은 책, pp.123-124.

중국에서 '국어' 개념은 중화민국 건국 후인 1920-30년대에 이르러 등장하게 된다. 이른바 "국음(國音)"이라고 하는 표준어의 제정이 바로 그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중국 북방과 남방의 상이한 발음을 인위적으로, 그것도 북경음에 더 비중을 둔 채 절충·종합한 탓에 "실제로 아무도 사용할 수 없었다"는 데, 달리 말해서 "사용자가 없는 언어"였다는 데 있었다. "1922년 하버드대학에서 중국어 강의를 할 때 나는 바로 이러한 중국어를 가르쳤다. 축음기판이 있고 없건 간에 세상에서 실제로는 쓰이지 않은 한 언어를 가르치는 것은 아무래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13년 동안 이러한 4억, 5억 혹은 6억 사람에게 정해준 국어를 어처구니없게도 오직 나 한사람이 말하고 있었다"고 하는 조원임(趙元任)의 회고는 당시 중국 국어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9] 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떠안고도 당시 북경어에 토대를 둔 중국 국어는 현재까지도 중화민국(대만)의 공식어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중국 국어의 언문일치가 다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 국어의 언문일치는 20세기 초의 '백화문(白話文) 운동'과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제정·시행되었던 '보통화(普通話)'와 '간화자(簡化字)'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난다.

> 20세기 초에 진행된 동아시아 공동 문어의 해체로 민족어 시대가 개막되고 동시에 언문일치 시대가 도래하였고, "나의 손은 나의 입을 쓴다(我手寫我口)."라는 구호를 내걸고 진행되었던 20세기 초의 백화문 운동을 거치면서 공식적인 문어는 백화로 대체되었다. 당시에도 베이징말을 기초로 형성된 표준어인 관화가 있었지만 현재의 중국 표준어인 보통화 보급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20세기 중반 이후와 비교하면 그 세력은 미약하였고 지위도 불안하였다. … 공동 문어를 버리고 정치 중심지의 구어를 표준어로 삼아 이를 대중 교육을 통해 보급하여 언어 통일과 언문일치를 이룩하는 것이 근대 국민국가들이 시행하는 공통된 언어 정책이다. 중국의 보통화 보급 정책 역시 이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또 부국강병의 근대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대중 교육을 통해 '국민'들을 계몽해야 하고, 국민 계몽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배우기 쉽고, 쓰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문자의 모색이었다.[10]

비록 일본의 경우와 달리 문어를 버리고 구어를 표준어로 삼았다고는 해도 그것이 북경이라는 '정치 중심지'에 근거한 이상 이는 여전히 근대 중국이라는 국민국가 형성의 기제로 활용되었고, 그 종착역은 서세동점을 극복하고 일제 치하의 항일전쟁과 이후의 국공내전을 승리고 이끈 국민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언어로서 현대 중국어의 국가적 생산이었다. 이제 질문은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 기제로서 국어의 해체는 과연 가능한 것일까? 그렇다면 그 실마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첫 발은 역시 문화에서 떼어 봐야 하지 않을까.

2) 분기(1): 문화, 텍스트, 언어

---

8) 김중섭, 「현대중국어의 형성과 발전」, 『언어학연구』, 제6호, 한국언어연구학회, 2001.11, p.118.

9) 何九盈, 『中國現代語言學史』, 廣東教育出版社, 1995, p.31 — 김중섭, 앞의 글, p.119에서 재인용. 중국 '국음'의 형성 과정 및 그 문제점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같은 글, 같은 쪽을 볼 것.

10) 양세욱, 「근대어 성립에서 번역의 역할 — 중국의 사례」, 『새국어생활』, 제22권 제1호, 국립국어원, 2012. 봄, pp.49-50. 인용 중 이미 표기한 한자어는 생략했다.

여기서는 알튀세, 비트겐슈타인, 이글턴의 논의를 통해 문화·텍스트·언어에 대한 문화연구적, 그 가운데서도 유물론적 접근을 시도해 보도록 한다. 먼저 살펴 볼 것은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 “문화는 텍스트다”,[11] “언어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박한come to 세계는 이미 의미로 가득 차” 있고, 따라서 “우리가 교섭해야 하는 세계” 또한 “언어적이고 역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만 하는 세계”는 바로 이 같은 세계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텍스트로서 문화 읽기”는 이미 언어적·역사적 의미로 가득 찬 그 세계에서 우리 각자가 “밥 먹듯이 하는does every day 그것이다”. 이 주장을 펼친 노튼Anne Norton은 그 근거로 알튀세와 비트겐슈타인의 논의를 빌려 오고 있다. 이 둘의 논의는 한 마디로 말해 ‘구조와 주체 간의 변증법적 관계’로 풀어볼 수 있다.[12]

먼저 알튀세는 “**읽기**의 문제, 또 결론적으로는 **쓰기**의 문제”,[13] 아울러 “역사와 관련한 이론, 그리고 즉각적인 것의 불투명성과 관련한 이론 둘 다”를 최초로 거론한 사람으로 스피노자를 언급하면서, 그와 그가 보여 준 방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역사상 “최초로 상상적인 것과 참된 것the imaginary and the true 간의 차이와 관련한 이론 속에서 읽기의 본질과 역사의 본질을 한데 엮었다”고, 그리고 마르크스 또한 “역사와 관련한 이론, 또 이데올로기[14]와 과학 사이의 역사적 구분과 관련한 이론을 세우고 결국 **읽기**의 종교적 신화를 소멸하는 가운데 그 같은 이론의 토대를 확립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어서 알튀세는 『경제학-철학 수고』(1844)를 쓸 때 마르크스가 한 읽기와 『자본』(1867)을 쓸 때 그가 한 읽기를 대조하는 가운데, 전자의 경우 그가 “인간 본질의 소외가 갖는 투명성 속에서, 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인간 본질을 읽었”다면, 후자의 경우 그는 “현실적인 것 속에서 그것의 구조 안에 기입되어 있는 어떤 거

---

11) 앞으로 전개할 논의를 위해 텍스트와 언어의 상관성을 잠깐 언급해 두는 게 좋을 듯하다. 그 둘을 동일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텍스트의 범위가 언어의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어가 텍스트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절의 논의에서는 텍스트와 언어를 같은 층위에 놓고 보는 시각도 함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문화연구의 영역에서 ‘텍스트’란 “의미화 과정을 통해 의미를 발생시키는 어떤 것으로 간주”되며, 이것은 “문화연구의 공리”로 일컬어질 만큼 중요하다. 텍스트는 일종의 ‘은유’이기도 하다. “기호를 재현으로 조직하면서 의미 구성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텍스트에는 기본적으로 “이미지, 소리, 옷과 같은 사물, 춤과 스포츠 같은 활동 등을 통한 의미의 발생이 포함”된다. “이미지, 소리, 사물은 언어와 동일한 기본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의미화하는 기호체계이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문화적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옷, 텔레비전, 이미지, 스포츠 경기, 대중 가수 등은 모두 텍스트로 읽힐 수” 있는 것이다. Barker, C., *The SAGE Dictionary of Cultural Studies*, London: SAGE, 2004, p.199; 바커, 크리스, 『문화연구사전』, 이경숙·정영희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pp.327-329.

12) Norton, A., *95 Theses on Politics, Culture, and Method*,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4, pp.50-52; 앤 노튼, 『정치, 문화, 인간을 움직이는 95개 테제』, 오문석 옮김, 엘피, 2010, pp. 22-23.

13) 이 ‘쓰기’ 곧 ‘writing’은 ‘문자’로 그 의미가 확장될 수도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영단어의 주된 번역어가 그 둘이기 때문이다.

14) 이글턴은 이데올로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금 우리가 거론하는 것은 한가한 공상이 아니라 힘을 발휘하는 환상이다. … 이데올로기는 유령과 허깨비를 파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우리를 교란하여 정치적 변화의 필요성을 간과하게 만든다면 이데올로기는 충분히 현실적이다.” 참으로 명쾌하지 않을 수 없다. 이글턴, 테리, 『유물론: 니체, 마르크스, 비트겐슈타인, 프로이트의 신체적 유물론』, 전대호 옮김, 갈마바람, 2018, p.87.

리와 내적 탈구internal dislocation (*décalage*)를, 다시 말해서 손수 자기가 갖는 효과를 읽기 어렵도록 만들고, 그 효과를 즉각적으로 읽는 것으로 이루어진 환상을 그 효과의 궁극적 절정인 물신주의로 만들게 될 그 거리와 탈구를 정확히 측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다.15) 결국, "읽기라는 역사적 종교"는 "오로지 사상 속 역사, 역사 이론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역사의 진리가 현시하는 담론 속에서 그 진리를 읽을 수 없음을 밝힘으로써 가능하다. **역사의 텍스트**는 어떤 음성a voice (the Logos)이 말을 하는 텍스트가 아니라 **들리지 않고 읽히지 않는 표기법**notation, 곧 **복수의 구조로 이뤄진 어떤 구조의 효과가 만들어 내는 표기법**이기 때문"이다.16)

다음, 노튼이 비트겐슈타인한테서 갖고 오는 말은 이것이다. "사유, 언어는 이제 우리에게 세계의 독특한 상관자correlate, 세계의 그림으로 보인다. 명제, 언어, 사유, 세계 — 이 개념들은 일렬로 잇달아서, 각각이 다른 등가물로서 서 있다. (그러나 이제 이 낱말들은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 그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언어놀이가 결여되어 있다.)"17) 비트겐슈타인의 독창적 철학 개념인 '언어놀이'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가 바라보는 언어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커Chris Barker는 그가 『철학적 탐구』의 §43에서 하고 있는 말, 곧 "한 낱말의 뜻은 그것이 언어 안에서 사용될 때 생겨난다.The meaning of a word is its use in the language."는 말을 인용하며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진리'에는 절대적 권위 따위가 아니라 그 언어의 사용 맥락에 따라 서로 달라지는 특질이 있다"the contextual nature of 'truth'"는, 이른바 언어(또는 진리·텍스트)의 '맥락의존성context-dependency'을 주창하고 있다.18) 이 같은 언어의 맥락의존성과 관련한 논의는 언어를 '누가' 사용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것에 대한 답으로 비트겐슈타인은 "살아 있는, 또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존재living human beings"가 언어를 써야 한다는 것, 그때 그 언어로 이루어진 표현이 비로소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답을 내어놓는다. 달리 말해서 "언어가 '사람의 **삶꼴**human 'forms of life'에 직접적으로 엮여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19)

> 이런 맥락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단어가 구체적인 삶꼴 안에서 기능하는 방식을 의미로 간주한다. **의미란** 정신의 상태, 또는 기호와 대상 사이의 유령 같은 상관성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관행, practice)이다. … 언어는 실재를 '반영'하거나 실재와 연결되지 않는다. **언어는 그 자체로 물질적 실재**다. … 이것은 확실히 관념론적이라기보다 **유물론적인 관점**이다. … 인간에게는 언어가 대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이 대상을 구성하며 언어는 그 활동을 결정화(結晶化)한다. … 언어는 일상의 실천들과 연결되어 있다.20)

자, 이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상상해 보자. 그리고 그렇게 쓰는 언어를 어떤 '게임'과 같은 것으로 상상해 보자. 거기에 똑

15) 이것이 알튀세의 마르크스 독법으로 익히 알려진 '인식론적 단절epistemological rupture' 테제다.
16) Althusser, L. & Balibar, É., *Reading Capital*, B. Brewster (tr.), London: New Left Books, 1970, pp. 16-17 — 강조 글쓴이.
17) Wittgenstein, L., *Philosophical Investigation*, 2nd ed., G. E. M. Anscombe (tr.), London: Blackwell, 1958, 44e §96; 비트겐슈타인, 루트비히, 『철학적 탐구』, 이영철 옮김, 서광사, 1994, p.77.
18) *ibid.* 20e; 같은 책, p.44.
19) Barker, C., *Cultural Studies*, 3rd ed., London: SAGE, 2008, pp.100-1 — 강조 원저.
20) 이글턴, 앞의 책, pp.155-156 — 강조 글쓴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것이며, 똑같은 방식으로 언어를 쓰는 사람, 곧 똑같은 규칙을 가진 똑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 또한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삶의 모습, 그 모든 언어 사용 방식, 그 모든 게임의 규칙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는 말은 아니다. 그 모든 것은 **엇비슷**할 뿐이다. 마치 한 가족의 모든 구성원, 심지어 쌍둥이마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서로 비슷한 것처럼 말이다. 그 결과, “우리는 겹치고 교차하는 유사성의 복잡한 그물”을 상상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비트겐슈타인은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s”으로 부른다.21) 이렇게 볼 때 “‘게임’이라는 말은 관계적relational”이라고 할 밖에 달리 도리가 없지 않을까.22)

이제껏 해 온 논의를 되뇌면서 다시 노튼의 주장으로 돌아가 보자. 문화는 텍스트다, 우리가 언어와 역사를 통해서 향하는 세계는 이미 의미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교섭해야 하는 세계가 언어적이고 역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만 하는 세계 또한 바로 이 같은 세계다, 우리가 일상에서 문화를 어떤 텍스트로서 읽는 것이야말로 이미 언어적·사회적 의미로 가득 찬 그 세계에서 우리 각자가 밥 먹듯이 하는 일이다. 간단하나마 다시 풀어쓰면 이렇게 될 테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에, 아니 우리의 일상이 수많은 힘과 의미로 엮인 그물과 같은 것이고 그 그물이 바로 문화이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그 같은 그물 또한 수없이 많을 수밖에 없기에, 그 같은 문화는 텍스트text이자 맥락적contextual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 텍스트라는 것이 이미 어떤 의미,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 우리를 주체화하고자 지배계급이 집어넣어 놓은 정치적 불순물로 가득하다는 점은 우리가 결코 그 텍스트와 그것의 역사사회적·문화적 의미를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당위를 뒷받침한다. 일단 그 텍스트가 들러붙어 있는 정치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뒤 그 텍스트를 그것이 똬리를 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맥락 곧 주체화subjectivation; 臣民化를 기도하는 그 맥락에서 떼어내어 다른 이데올로기적 맥락 곧 탈주체화desubjectivation를 모색하는 맥락에 이어 붙여야 한다. 이때 비로소 문화는 이데올로기 투쟁의 장이 될 수 있다.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대설 수 있는 반이데올로기로 무장한 피지배계급은 거기서 조용한 혁명을 꾀할 수 있게 된다.23) 다시 이글턴의 말이다. 그는 앞서 했던 언어놀이 관련 논의를 통해 연대와 저항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 외부에서 보면, 언어놀이들은 충분히 자의적으로 보이고, 한 놀이를 다른 놀이로 대체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내부에서 보면, 언어놀이의 규칙들은 강제력을 발휘한다. 물론 타협의 여지가 없는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24) 규칙들과 관습들이

---

21) Wittgenstein, *op cit.* 32e — §67-8; 비트겐슈타인, 앞의 책, p.60.

22) Barker, *op cit.* p.101.

23) 달리 말해서 이것이 바로 그람시의 진지전war of position이자 그의 생각을 이어받은 홀이 이야기하는 절합articulation이며, 또한 이는 르페브르의 전유appropriation, 기 드보르의 전용détournement임과 동시에 드 세르토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지배계급의 전략stratégie에 맞서 펼치는 일상의 실천pratique du quotidien으로서 전술tactique이다. 이 모든 이론적·실천적 개념이 생산된 역사사회적·이론사적 맥락은 상이하지만, 그래도 지배이데올로기에 맞선 대항이데올로기의 개인적·사회적 생산이라는 맥락에서는 공통점 또한 있기 때문에 한데 묶어 보기로 한다.

24) 이는 간단히 도식화해 볼 때, 마르크스·엥겔스 → 그람시 → 알튀세로 이어지는 ‘상대적 자율성’ 테

힘을 가지는 것은 그것들이 실천적인 삶꼴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것들이 순전히 언어적이라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사하는 권위는 훨씬 약할 것이다. 누군가가 관습적으로 행동한다는 말은, 그의 행동의 의미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서 유래한다는 뜻이다. 언어와 관습은 우리의 상호연대의 기호들이다.[25]

우리는 절대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언어놀이의 일상적 규칙에 얽매여 있다. 생활관습과 그것이 형성하는 일상의 맥락에도 얽혀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두를 새로운 무엇으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것들이 우리의 실천적 삶꼴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서로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영 딴판으로 다르지는 않다. 엇비슷하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다. 그렇기에 언어와 관습이란 것이 우리가 꾀할 수 있는 상호연대의 기호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주장하기에 앞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다. 그 기호를 우리의 현실세계로 한층 더 뚜렷이 드러내려면 우리는 여러 제약 조건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 또 그것들에는 층위 또한 여럿이 있다는 점이다. 그 조건이 앞서 살펴봤던 '국어'가 될 수도 있고, 이 작업의 주제인 '중국어 원지음 표기와 한국어 정체성 보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층위 더 내려가 보면 그 조건에는 대중문화와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문제가 있다. 이 사회 내 언중의 벡터를 형성하는 대표적 변위 둘, 다음 절에서는 이 둘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3) 분기(2): 대중문화와 포스트콜로니얼리즘

먼저 한국 대중문화가 시작한 때를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자체가 일제강점기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 내의 대중문화 연구는 산업화·도시화와 더불어 급격한 변화를 겪기 시작한 1960년대를 기점으로 1960년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과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나뉜다. 전자는 사회과학이 이끈 것으로서 대중문화의 등장을 사회 변화로 보고 그 변화가 갖는 의미를 찾는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띤다. 하지만 이 같은 경향에는 그 일에 지나친 무게를 둔 나머지 대중이 일상을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후자의 움직임이 생겨나는데, 이를 이끈 인문학 쪽은 1960년대 당시 대중문화 현상이라 할 만한 것 가운데 적어도 일부분, 특별히 라디오·신문·잡지 같은 대중매체가 일제 강점기 동안에 생겨났기 때문에 "대중문화와 그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훨씬 더 시계 바늘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게 된다. 다시 말해 1920년대와 30년대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한국의 현재를 연구하는 문지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26] 그 결과 현재에 이르러서는 한국 사회

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중에 한 번 더 간단히 언급하겠지만, 상대적 자율성은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한 마디 말로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을 환원론 및 결정론으로 폄훼하는 입장에 대해 마르크스주의 쪽에서 반론을 펼칠 때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간단히 말해서, '대개의 경우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구성된 토대가 정치·법률·철학·예술·윤리는 물론 심지어 사회적 의식 같은 것으로 구성된 이데올로기적 형태로서 상부구조를 결정하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이 상대적 자율성 테제의 핵심이다.

25) 이글턴, 앞의 책, p.160.

26) 이 절은 원용진, 「보론_포스트콜로니얼리즘」, 『새로 쓴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한나래, 2010, pp.444

의 대중문화를 논의하는 데 필요한 이야깃거리가 훨씬 더 풍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시대에 이르러 한국 대중문화를 일제 강점기, 특별히 1920-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검토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7년에 있었던 두 기념행사, 곧 한국방송 80주년 기념행사와 근대 서양 의학 100주년 기념행사 계획에 맞선 심한 사회적 반발이 그 같은 갈등을 잘 보여주는데, 그 반발에는 라디오와 병원을 이 땅에 도입한 것이 일제고 그리한 까닭이 일제 통치의 수월함을 꾀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것은 기념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치밀하게 파헤쳐 일제의 식민지배 야욕을 드러내는 쪽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이른바 민족주의적 관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몸에 새겨져 있는 일제의 잔재,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한 식민주의적 제도와 장치를 한시바삐 떨어내야 한다는 주장과 같았다. 여전히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식민과 피식민의 관계에 엮여 들어가 있는 셈이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었다.[27]

일제의 식민 지배가 끝나자마자 이 땅과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또 다른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된다. 바로 미국이었다. 하지만 미제의 지배는 일제처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식민통치의 방식을 통한 것이 아니라 신탁통치 결정과 한국전쟁의 후속 조치에 따른 군대 주둔의 방식, 말하자면 조금은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이른바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 postcolonialism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미제의 지배를 받는 동안 이 땅은 서구문화를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일제를 거치는 동안 그 모습이 변한 채 이 땅에 들어온 서구 문화가 아닌 ‘오리지널’을, 그것도 왕창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이 땅에는 “딱히 국적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혼성성”을 띤 대중문화가 자리를 잡게 된다.[28] 이 같은 대중문화의 혼성성은 어떤 사회적 위기감을 조장하게 되고 급기야 대중문화를 ‘**순종**’으로 만들려는 움직임, 곧 ‘민족문화 창달’을 향한 대대적 움직임이 일기에 이른다. 대중문화와 민족문화의 대결 구도가 확실히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 구도 속에서 발생한 것 가운데 ‘국어순화운동’이 있을 텐데, 이 작업의 주제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예시다.

> ‘불순한 것을 제거하여 순수하게 함’을 뜻하는 한자어 ‘순화’에는 두 개의 한자 표기가 존재한다. 하나는 ‘불순 요소를 제거하는 일’을 강조하는 ‘순화(醇化)’이며, 다른 하나는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순화(純化)’이다. 대체로 국어 순화에 관심을 기울여 온 사람들은 ‘불순한 요소’를 제거하는 의미의 ‘순화(醇化)’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 온 것으로 보인다. … 일제 강점기부터 광복 직후까지 국어학자 또는 국어 운동가들이 주로 사용했던 용어는 ‘순화(純化)’ 또는 ‘정화(淨化)’이다. 이는 광복 직후 문교부에 설치한 위원회의 명칭에서도 증명된다. 이처럼 국어 순화와 정화는 본질적으로 ‘깨끗하게 하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화의 결과’를 의미하는 ‘순화한 용어’는 본질적으로 ‘깨끗하게 다듬은 용어’를 의미한다.… ‘순화어’는 본질적으로 ‘불순한 요소’, ‘깨끗하지 못한 요소’를 걸러낸 말을 뜻한다. 이 점에서 순화어는 순화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광복 직후 이루어진 ‘우리말도로 찾기 운동’의 순화 대상어는 ‘일본말’이다. 이는 국어 회복기에 우리말을 다시 찾아야 한다

-73의 논의를 주로 참조하면서 관련 내용을 보탠 것임을 밝힌다. 인용은 같은 글, pp.445-446.

27) 같은 책, pp.447-448.

28) 같은 책, p.449.

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각종 학술어나 생활 용어에서 일본어의 영향을 걸러내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순화의 주된 목표였다.[29]

이 땅에서 일제나 일본을 반대말로 삼은 '민족'과 '민족문화'라는 말이 얼마만큼의 힘을 얼마동안 발휘해 왔는가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민족문화는 역사의 기원과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 냄과 동시에 '국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민족적 자긍심의 원천을 만들어 내고, 그에 따라 국민은 또 다른 어설픈 제국의 시민으로 거듭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의 문화를 부러워하거나 깔보게 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다주기도 했다.[30]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 그에 앞서 해 둘 얘기는 현재에 이르러 (한)국어 순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외)국어가 단지 일본어이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 대상은 유럽언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영어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다음의 표를 한 번 봐 보자. 2018년 12월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자료에서 가장 최근에 다듬은 말만 추려낸 것이다.[31]

<표1>「말터(malteo.korean.go.kr)에서 다듬은 말 전체 목록」중 가장 최근 것

번호	순화 및 표준화 대상어	어원	순화어 및 표준화 용어	의미 및 참고 사항	분야	순화어 발표일
392	메이커 스페이스	maker space	열린 제작실	입체(3D) 모델 파일과 다양한 재료들로 소비자가 원하는 사물을 즉석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작업 공간.	사회	2018.12.17.
393	세이프 가드	safe guard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하여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 장벽의 하나.	경제	2018.12.17.
394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	제3자 제재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	경제	2018.12.17.
395	에어 서큘레이터	air circulator	공기 순환기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가정용 전기 기구. 실내 온도 차를 작게 하고 냉난방 효과를 높임.	전기 전자	2018.12.17.
396	오버 투어리즘	over tourism	관광객 과잉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관광지에 몰려들면서 관광객이 도시를 점령하고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	사회	2018.12.17.
397	쿨링 오프	cooling off	계약 철회 보증 (제도)	판매자의 권유에 의해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추후에 불필요하다고 느꼈을 경우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경영	2018.12.17.
398	플래그십 마케팅	flagship marketing	대표 상품 마케팅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대표 상품을 중심으로 판촉 활동을 하는 마케팅 기법.	경영	2018.12.17.

29) 허재영,「《우리말 도로 찾기》의 국어 순화 원리」,『사회언어학』, 제22권 3호, 한국사회언어학회, 2014.12, pp.229-230.

30) 이를 깨닫게 된 몇몇은 "과거를 찾아 진정한 민족문화를 찾는 일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품고서 시각을 달리하여 이 땅의 문화 수용을 "세계 체제 내 자본주의 모순"에서 비롯한 것으로 파악하고 서구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종속"을 끊어냄으로써 "문화 제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어 놓기도 했다. 원용진, 앞의 책, p.450. 관련 논의가 곧 이어진다.

31)「말터(malteo.korean.go.kr)에서 다듬은 말 전체 목록」, 국립국어원, 2018.12.21., p.65.

다음 이미지는 국립국어원의 말 다듬기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를 가늠하게 해 주는 예시로서 ‘에어 서큘레이터’와 관련한 대중문화 텍스트를 뽑아본 것이다.

<그림1> ‘프리미엄 에어서큘레이터 저소음 공기순환기 R10’의 광고 이미지[32]

먼저 문자만 추려보자. ‘AVIAIR’, ‘COMFORT’, ‘CLEAN’, ‘CARE’, ‘에어서큘레이터’, ‘R10’이 보인다. 만약 이 말들을 처음에는 ‘새처럼 날아다니는 공기’,[33] ‘편안’, ‘청결’, ‘배려’, ‘공기순환기’로 바꾸고 ‘R10’[34]은 그대로 놔뒀다고, 다음에는 ‘R10’을 뺀 나머지를 ‘鳥氣’,[35] ‘便安’, ‘淸潔’, ‘配慮’, ‘空氣 循環期’로 바꿔 놨다고 상상해 보면 어떨까? 어색함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이다. ‘우리한테 상품광고 이미지의 알파벳은 왜 낯익게, 한글은 왜 조금 낯설게, 한자는 왜 더 낯설게 다가오는 것일까?’ 한마디로 우리 **몸**이 식민화됐기 때문이다. 식민지의 잠재태로서 몸이 식민지배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 식민지의 현실태로 탈바꿈한다는 것, 또 그것이 식민지배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그림1>의 경우를 두고 펼쳐볼 수 있는 주

32) 신세계몰, http://www.ssg.com/item/itemView.ssg?itemId=1000017257724(검색일: 2019.02.10.)
33) 조금 무리이긴 하다. ‘AVIAIR’가 상품명으로서 고유명사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34) 이것은 말마따나 모델명으로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35) 이 낱말은 라틴어로 ‘새’를 뜻하는 ‘avis’와 ‘air’를 결합한 것이다. 전자와 관련한 예를 좀 더 들어보면 그것에 동사형 접미사 ‘-ate’가 붙은 ‘aviate; 비행하다’, 이 동사의 명사형인 ‘aviation’, ‘aviator’가 있고, 또 ‘electronics’가 결합한 ‘avionics; 항공 전자 공학(기기)’도 있다. 어쨌든 ‘avi’가 보이면 ‘나는 것’, ‘항공’, ‘날개’ 같은 뜻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무방할 것 같다. 세계적인 호텔·렌터카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Avis’ 또한 그 뜻인데, ‘항공 및 자동차 이동이나 여행’ 같은, 현대사회의 일상적 실천이 생산해 낸 사회문화적 의미가 덧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장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 '알파벳을 통해 몸을 식민화하는 이데올로기와 그 효과는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자본 축적의 목적은 오직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려는 데 있고,[36] 상품광고와 그 이미지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한다. <그림1>에서 그 목적은 상품광고 이미지의 일부로서 물질세계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미 관념화되어 버린 자본의 한 형식인 알파벳이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기능함으로써, 또 그 장치가 이 몸과 이 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물질적 조건에 은밀히 이식됨으로써 달성된다. 그리고 그 목표는 우리의 무의식적 실천으로 늘 초과 달성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실천을 통해 그 같은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 할수록 오직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려는 자본 축적의 목적 또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37]

여태껏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 한국 사회의 대중문화를 논의하는 것은 이리저리 얽히고설켜 있는 실타래를 푸는 일 마냥 아주 복잡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일제와 미제,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 민족과 국민, 국가, 계급, 자본주의와 같은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살펴보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으며, 특별히 이 작업의 주제인 '중국어 원지음 표기와 한국어 정체성 보존'의 문제는 물론 그것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및 제언까지 함께 고려해 본다면 그 의미는 한층 더 커진다 할 것이다.

먼저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postcolonialism'의 접두사 'post'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후기'나 '탈' 정도로 애써 번역하던 것을 있는 그대로 '포스트'로 옮겨 놓은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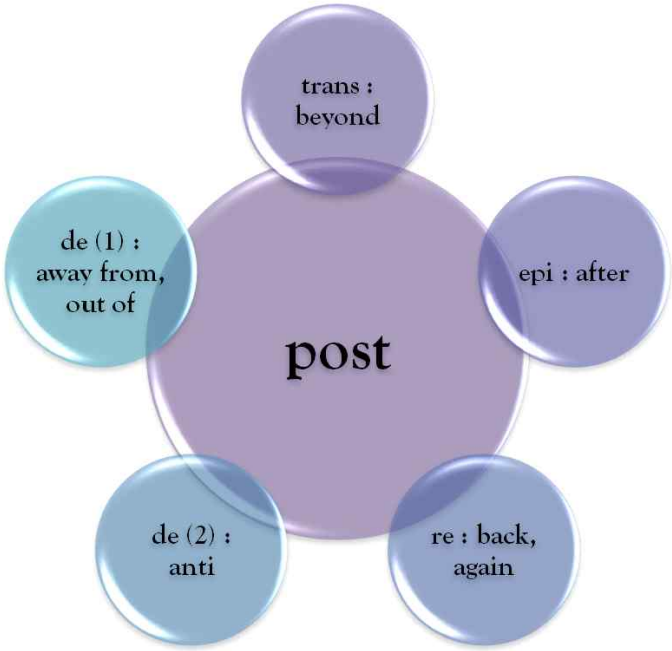
---

36) 이 테제는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에서 핵심을 이룬다.

37) 한자를 통한 대항헤게모니 구축의 가능성, 다시 말해 한자와 알파벳 간의 변증법적 관계 구축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두 차례의 간화방안을 거치며 한자의 물질성이 다소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한자의 '形'에는 유물론적 접근에 필요한 잠재력이 여전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에 한자와 알파벳의 관계 설정을 유물론에 입각한 변증법적 접근으로 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까지도 잔재하고 있는 여러 중심주의, 예컨대 (신)중화주의·(신)제국주의·(신)식민주의·유럽 및 아시아중심주의·음성 및 문자중심주의 같은 것들 간의 역학 관계를 꿰뚫어야만 한다는 난관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 난관을 뚫고 앞서 말한 관계 설정이 가능해진다면, 한자뿐 아니라 한글까지 포함하는 이 땅의 언어 자체가 한층 더 값진 것이 될 테고, 우리 언중의 일상적 문자생활 또한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본다.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앞으로 찬찬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혼자보단 여럿이 아무래도 더 나으리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참고로 <그림1>에는 맥락의존성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다. 이 이미지에 아무런 문자 없이 정말로 그 사물의 모습만 있다 한들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할지 모른다. 요 몇 년 동안 여름철의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 쯤은 봤을 법한 것이니까 말이다.

38) 먼저 정의와 함의를 간단히 살펴보면,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은 "'식민 통치라는 억압의 역사가 남긴 유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식민 시대부터 받아들이게 된 근대적 문물"과 그 문물의 "원산지인 서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재현되고 있으며,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를 따지는 작업"이자 "식민 잔재를 벗어나기 위한, 혹은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면서도 실천", 달리 말해서 "아직 식민주의 잔재가 남아 있음을 드러내 보여 주고, 그것을 극복할 실천을 제안하고, 꾀하는 것"이다. 또한 근대 문물과 그것을 이 땅에 들여와 심은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태도, 또 그 사람이 우리 문물과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 모두를 아우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인용은 원용진, 앞의 글, pp.451-452.

<그림2> ‘post’의 다양한 함의



어떤 이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포스트구조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과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한다. 이 설명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견해는 이분법적 사고에 강하게 반발하는 두 주의가 식민주의 對 반de (2); anti식민적 민족주의, 그리고 식민주의 對 반식민적 마르크스주의의 대결구도를 무너뜨리고 더 나은 방식으로 식민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두 포스트 주의의 영향을 받은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이 심지어 그 두 포스트 주의보다 더 “유연한 사고를 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주장을 내어 놓는다.[39] 까닭은 피식민지의 사람들이 겪은 고통을 결코 민족과 계급의 단일한 집단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자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은 앞서 말한 두 포스트 주의가 새로이 내어 놓은 또 다른 두 주의, 곧 페미니즘과 인종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반본질주의적 입장을 취한다[40]. 지금부터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대표적 이론가·비평가와 그 사람들의 논의·입장을 소개하도록 할 텐데, 순서는 파농Frantz Fanon, 사이드Edward Said, 바바Homi K. Bhabha, 스피박Gayatri Spivak으로 이어진다.

파농1925-1961이 포스트콜로니얼 연구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는 “여

39) 같은 책, p.453.

40) 하지만 이 또한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예컨대 앞서 주 24에서 논의한 ‘상대적 자율성’은 경제결정론이라는 본질주의나 환원주의의 함정을 염두에 둔 것이고 알튀세의 반인간주의 또한 이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한 근대 주체에 맞서는 반본질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알튀세의 반인간주의에 구조주의적 환원의 위험이 있다는 말이 사실무근인 것만은 아니다. 알튀세가 “주체를 자기 구성적 주체”(자신의 역사를 구성하는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구조의 ‘효과’”(이데올로기적 효과)로 봄으로써 주체가 하는 모든 실천이 “오직 이데올로기로써, 그리고 오직 이데올로기 안에서 이루어지기만 한다.”고 얘기한다는 주장 또한 있기 때문이다. Barker, 앞의 책, p.63.

전히 식민주의 비판의 가장 오래된 기억이고, 바탕정신이기 때문"이다. 리옹대학교에서 정신병리학을 전공하고 1953년에서 1956년까지 알제리 블리다주앙빌 정신병원의 정신과 의사로 있었던 그는 "식민의 힘"을 문제로 삼고 "피식민지인이라는 주체가 갖는 억압된 정신 상태 분석"에서 고민을 시작했다. 그는 식민과 피식민, 백인과 흑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어떻게 피식민지의 흑인을 망가뜨리는지를, 또는 식민주의 때문에 식민지의 흑인이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를, 특별히 자신처럼 프랑스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식민지의 흑인 엘리트가 어떤 경계에 서 있으며 어떤 분열과 소외를 체험하는지를 붙들고 씨름한다. 그 결과로 나온 책이 『검은 피부, 하얀 가면』[41]이다. 종교가 '인민의 아편'임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종교에 기댈 필요가 없는 현실을 열망하며 혁명을 실천하려 한 마르크스처럼, 그 또한 식민이 어떤 아편과 같은 것임을 깨닫고 식민 그 자체를 상대로 해서 싸우기보다 "식민지 현실을 바꾸려는 혁명적 노력이 곧 치유"임을 주장한다.[42]

또한 그 혁명은 민족을 넘어서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파농은 믿었다. 다시 말해 "진정한 민족 해방은 민족의식을 넘어설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43] 이 같은 주장은 그의 또 다른 주저인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44]에서 펼쳐지는데, 거기서 그는 알제리의 여성이 자발적으로 베일을 벗어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식민주의를 극복함과 동시에 민족주의적 관습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치유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다시 말해 식민주의에서 궁극적으로 해방되는 것은 "민중 중심적으로 민주적인 사회를 형성해 식민주의와 민족주의를 동시에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또한 "피식민 사회 내 프티부르주아가 보여 준 여러 형태의 자기 탈색 과정"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기도 했다. 결국 민족 해방은 "민족주의가 띨 수 있는 봉건 관습과 잔재를 청산하는 일, 마르크스주의가 내세우는 계급 해방, 식민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의식의 회복이 한데 어우러져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하게 되는데,[45]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농은 "식민주의에서 드러나는 차별(특히 인종 차별)을 문화적 과정으로 파악"한다. 식민주의는 결과가 아니다. 그것을 결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원을 찾게 되고 그 기원에는 오직 자기를 부정할 힘밖에 갖고 없기 때문에 저항의 긍정적 힘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 결과 그 자리에는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지나친 증오심(친민족·반식민)이나 탈색을 향한 편집증(친식민·반민족)의 두 극단밖에 남지 않게 된다. 특별히 "문화적 침탈, 포섭, 저항"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현실을 두고 볼 때, 식민주의적 차별을 문화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파농의 태도가 시사하는 바는 결코 적지 않다 할 것이다. 둘째, 그는 "폐기abrogation와 전유approp

41) *Peau noire, masques blancs*, 1952; 이석호 옮김, 인간사랑, 1998.
42) 원용진, 앞의 책, pp.457-458.
43) 같은 책, p.459.
44) *Les Damnés de la Terre*, 1961; 남경태 옮김, 그린비, 2010.
45) 같은 책, pp.459-60. 이와 관련해서는 "프로이트적 입장의 파농과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의 파농"을 각각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이해하려는 도식화를 문제시하면서 "양자를 긴장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로 파악"할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파농에게 심리학과 정치학 또는 프로이트와 마르크스는 초기 저서와 후기 저서를 구분하는 두 개의 이론적 축이지만, 그 구분이 확연하거나 배타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경원, 『검은 역사 하얀 이론: 탈식민주의의 계보와 정체성』, 한길사, 2011, pp.184-188.

riation"라는 "탈식민주의 전술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전자보다 후자에 더 주안점을 두는데, 이는 식민주의 바깥에서 단순히 그것을 적대시하며 벌이는 투쟁이 아니라 그 속에서 투쟁 주체가 갖고 있는 현실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투쟁 방식과 그것의 실천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그가 프랑스에서 배운 정신분석학을 투쟁의 무기로 적극 활용한 것이 좋은 예다. 셋째, 그는 식민주의에서 해방되는 일이 "민족주의로는 불가능함을 간파"했다. 그는 말 그대로 민족 해방을 생각했던 듯 보인다. 민족은 민족을 넘어설 때 비로소 진정한 해방을 이룬다고 믿었던 그는 해방의 문제를 계급보다 민족으로 환원하는 것을 더 큰 문제로 삼았다. 파농 이후의 포스트콜로니얼 연구가 여러 갈래로 뻗어가는 가운데 특별히 페미니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46]

사이드[1935-2003]는 포스트콜로니얼 비평과 이론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사상가로 볼 수 있다. 그의 작업이 "어떤 면에서는 파농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며 실천 가능성에 가까이 가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는 1978년 *Orientalism*[47]을 세상에 내어 놓은 이래 포스트콜로니얼 연구뿐 아니라 그것과 관련한 여러 실천에 큰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별히 사이드가 파농과 맺는 관계를 놓고 볼 때,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의 논의를 통해 먼저 "서양의 식민주의자가 식민 지배를 행하기 이전부터 갖고 있던 동양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리엔탈리즘이 직접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피식민인에게 어떻게 각인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한 파농을 잇는다고 볼 수 있다.[48] 그는 오리엔탈리즘의 논의를 통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것이 서구가 문화적·이데올로기적으로 동양에 관계하는 방식을 생산·결정·유포하는 다수의 담론적 구성물임을 밝히고, 그네들이 그토록 타자화했던 동양 또는 그 타자화 과정 자체가 오히려 그네들의 이른바 우월한 정체성을 "'실질적'"으로 확립해 가는 데 기여했다는 주장을 펼친다. 다시 말해 동양은 서구인의 마음 한 구석에 늘 있었던 "타자의 이미지"로서 "유럽(곧 서양)이 스스로를 동양과 대조되는 이미지·관념·성격·경험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49]

이 같은 오리엔탈리즘은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다. 이 실천은 다시 피식민 주체의 실천과 식민 주체의 실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오리엔탈리즘은 담론적 효과를 실어 나르는 제국주의적이거나 식민주의적인, 또는 둘 다의 "제도"를 통해 피지배 주체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둘째, "현재적顯在的; manifest 오리엔탈리즘"과 "잠재적latent 오리엔탈리즘"이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킬 때, 서구인은 후자를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우월감을 확증한다. 하지만 이는 어떤 모순을 일으킨다. 바로 잠재적 오리엔탈리즘으로 말미암아 현재적 오리엔탈리즘을 택함과 동시에 그 선택의 기준이 되었던 잠재적 오리엔탈리즘을 그 자리에서 내다 버리는, 자못 비논리적인 실천이 되기 때문이다.[50]

---

46) 원용진, 앞의 책, pp.460-461. 마르크스주의를 적극 수용한 페미니즘의 갈래는 있는 반면 민족을 그렇게 한 갈래는 없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위계구조나 위계질서를 빼 놓고 계급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가정이 타당하다면 여성 또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속한 위계구조나 질서를 이야기해야 할 테고, 그렇다면 이 또한 결국 계급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지 않을까?

47)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옮김, 교보문고, 1991·2000.

48) 원용진, 앞의 책, pp.463-464.

49) 사이드, 에드워드,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옮김, 교보문고, 2000, p.15.

사이드는 이 같은 오리엔탈리즘의 효과가 식민 주체와 피식민 주체의 실천으로 동시에 드러나게 되는 작동 원리를 설명하면서 푸코와 그람시가 하는 이야기에 더욱더 각별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노력이 "인종 문제와 민족 문제를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 주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의 논의에 한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한계를 요약하자면 첫째, 인종 문제에 너무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다른 여러 사상가가 인종·여성·계급·민족 문제를 한꺼번에 아우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을 "완벽한 담론 체계"로 생각하고 있는 까닭에 저항의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푸코와 그람시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따르기는 하지만 그들의 문제의식까지는 다다르지 못했던 탓에 "오리엔탈리즘을 역사화하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오리엔탈리즘을 더 잘게 나누어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살피지 못한 채 어떤 "보편적 현상"으로 다루는 데 그치고 만 것이다.[51]

사이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바바는 상당히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한다. 이 방식의 두 핵심 개념이 바로 "식민적 양가성"과 "혼성성"이다.[52] 바바는 식민주의적 담론이 연속적이고 보편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알튀세의 영향을 받은 푸코가 역사를 그렇게 바라봤듯이 그 또한 식민주의 담론의 흐름에 어떤 '인식론적 단절'이 생긴다고 보았다.[53] 잠깐 사이드가 현재적 오리엔탈리즘과 잠재적 오리엔탈리즘을 이야기 한 곳으로 돌아가 보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식민 주체가 늘 잠재적 오리엔탈리즘을 버리고 현재적 오리엔탈리즘으로 자신의 우월한 정체성을 확증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프로이트가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했듯이, 잠재적 오리엔탈리즘이 어떤 계기를 만나 현재적 오리엔탈리즘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편이 훨씬 더 타당하리라고 바바는 믿었다. 그리고 그는 그 찰나, 잠재성이 현재성으로 돌변하는 그 찰나에 인식론적 단절과 틈새가 생겨나고 거기에서 저항의 가능성이 싹튼다고 봤다. 그렇다면 그 같은 틈새는 왜 은폐되었는가? 해답은 "식민주의의 딜레마"에 따른 "욕망과 공포"의 아이러니, 곧 '식민적 양가성'에 있다.[54]

식민주의자는 먼저 끊임없이 위계적 차이를 만들어 내야 하는 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와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을 닮으려는 피식민자를 만들어 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기도 하다. 식민적 양가성은 이 모순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곳이기에 거기서 식민주의의 힘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 식민주의자가 움켜쥐고 있는 헤게모니에 비로소 금이 가게 되고 틈새가 나타나는 것이다. 저항의 싹은 바로 거기서 움튼다. 다시 말해서 식민적 양가성은 "식민권력의 강화와 약화를 동시에 수반하는 양면적 현상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그것은 늘 "권력의 전유"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담론의 열린 가능

---

50) 원용진, 앞의 책, pp.465-6. 그리고 이 같은 실천은 우리도 꽤 자주하고 있는데 이를 보통 '자기 오리엔탈리즘'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앞서 <그림1>의 분석에서 논의한 것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51) 같은 책, p.467.

52) 이경원, 앞의 책, p.393; 원용진 앞의 책, p.469.

53) 각주 15 및 관련 논의를 볼 것.

54) 원용진, 앞의 책, pp.468-469.

성” 또한 늘 있을 수밖에 없다.[55] 그렇다면 권력을 전유하고 담론의 열린 가능성을 공략하는 전술은 어떻게 전개할 수 있는가?

바바는 ‘혼성성’이라는 답을 내어 놓는다. 식민주의자가 생산하는 기호는 그것이 무엇이든 확정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기호의 생산 및 사용맥락이 상이한 탓이다. 의미의 결정불가능성 때문에 기호는 끊임없이 미끄러진다. 그러는 동안 기호 사용자는 기호 생산자의 의도에 사용자 각각의 불순물을 더해 가고, 그 불순물은 쌓이고 쌓여 어떤 침전물까지 만들어 낸다. 이제 불순물조차 잠재성의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것은 항상 현재적인 것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이로써 식민주의적 기호는 거의 완벽하게 생산자의 의도를 떨어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기호는 마냥 끊임없이 뒤섞이며 떠다니게 되고 식민주의자의 권력은 그렇게 전유 가능한 것이 된다. 담론의 열린 가능성 또한 그렇게 공략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혼성성은 식민주의자를 “흉내 내면서도 틀리게 흉내 내는(조롱하는) 모습”을 담게 되고 피식민지 사람들은 이 같은 “균열에서부터 정치적 의미를 내기 시작”한다.[56]

스피박은 피식민 주체를 더 잘게 나누어 “서양의 ‘타자’라는 담론으로 망라되는 피식민 집단 속에서도 결코 동질화될 수 없는 이질성과 차이에 대해 주목”하려 애썼다. 일례로 그녀는 피식민 여성을 이야기한다. 피식민 여성은 식민 상황에서 식민주의와 민족주의의 ‘이중 억압’을 받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피식민 여성이 그 억압의 상황에서 벗어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가? 스피박은 “타자와 타자를 규정짓는 자”의 관계에서 해답을 찾는다. 그 관계는 순수하지 않고 오염되어 있다. 앞서 논의한 바바의 경우처럼 그 관계 설립의 전략에 따르는 전술은 “서로 겹쳐 있고 혼성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자를 드러내는 방식 또한 한 가지 뜻만 담을 수 없다. 타자의 목소리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타자에 반응response; 應答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타자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57]

지금껏 이 절에서는 대중문화와 포스트콜로니얼리즘 간의 관계는 물론 여러 중요한 관련 이론까지 살펴봤다. 이를 토대로 ‘중국어 원지음 표기와 한국어 정체성 보존’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과연 놓친 것은 없는지 한 번 더 철저히 검토할 시간, 그 검토에 꼭 필요한 비판적 반성의 시간이 이윽고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지금껏 한국의 포스트콜로니얼 연구가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두 축으로 진행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 둘만 갖고 포스트콜로니얼 연구를 계속해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포스트콜로니얼 시대의 “문화적 양상”은 늘 다양하고,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 작업의 주제를 두고 “한국 사회 내의 비균질적 집단이 형성해 낸 다양한 혼종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는데, 추후 차근차근 수행토록 할 것이다.[58]

---

55) 이경원, 앞의 책, p.393; 원용진 앞의 책, p.469.
56) 원용진, 앞의 책, p.470.
57) 같은 책, pp.470-471.
58) 같은 책, pp.471-473.

3. 맺음말

지금껏 '중국어 원지음 표기와 한국어 정체성 보존'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및 제언을 '수렴'과 '분기'의 변증법적 관계설정을 통해 검토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모던'과 '포스트모던'의 변증법적 관계를 큰 틀로 해서 '근현대 국민국가-국민-국어'와 '사회-대중·언중-일상의 문화 및 언어·문자생활'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간간이 분석하면서 풀어내 봤다. 그리고 끝에서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대강과 관련한 주요 이론가 및 이론을 소개하면서 그 관계의 지양 가능성을 하나가 아닌 여럿으로, 문화적 획일성이 아닌 문화적 다양성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종합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다. 이번에는 그 관계의 설정dialecticisation까지, 나머지 그 관계에서 고민해 봐야 할 보존과 부정, 이 두 운동을 통한 고양, 이 모든 운동이 한꺼번에 일어날 때 비로소 작동하는 지양 및 그것의 방향성과 관련한 문제, 또 이 작업의 주제에 대한 변증법적 분석은 다음 작업으로 미뤄야 할 듯싶다. 이 작업의 주제와 관련한 필자의 명확한 입장과 그에 따른 주장 또한 마찬가지다.

끝으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은 '대중과 언중으로서 우리 자신의 욕동'이다. 우리는 늘 문화·언어·문자와 함께, 혼자 또는 여럿의 일상생활을 영위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의 삶꼴 및 실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삶꼴과 실천이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든 탈이데올로기적인 것이든 관계없이 그 욕동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다채로운 사회적 장을 형성한다 — 아니,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그리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삶꼴과 실천을 진보적이라 하든 퇴행적이라 하든 이조차 상관없다. 진보의 운동에는 퇴행의 운동이, 퇴행의 운동에는 진보의 운동이 늘 변증법적으로 — 때로는 현재적으로 때로는 잠재적으로, 때로는 연속적으로 때로는 불연속적으로 — 작동하기 때문이다. 세상 어느 것도 '순도 100%'를 뽐낼 수는 없다는 것, 그런 말이야말로 관념적 언어유희에 불과하다는 것,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특별히 언어와 관련한 뭔가를 주장하고, 그 주장을 토대로 어떤 공론장을 만들고, 그 장을 기반으로 해서 또 어떤 정책을 입안·결정·시행하려는 이론 생산자의 욕망이 충족되려면, 그 시발점은 반드시 우리 자신을 포함한 언중의 다양한 욕동과 아울러 그것들이 다채롭게 형성하는 사회적 장을 기술하고, 분석·설명해서 그 층위와 차원을 명확히 구현하는 곳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 이론 생산자의 다채로운 욕망이 생성시킬 벡터의 정당성은 다름 아닌 대중문화의 향유 주체인 대중이자 일상적 언어생활의 영위 주체인 언중으로서 우리 자신의 억눌린 욕망이 해방되는 장, 우리의 욕동이 활개칠 수 있는 사회적 장을 상정할 때 비로소 획득될 수 있다. 아울러 그러한 욕망은 존재하나 욕동은 부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는 후자를 생성시키는 쪽으로 길을 내야만 한다. 실지로 여태껏 내어 놓은 모든 주장에는 어쩌면 그 같은 '욕동 부재의 상황', 어쩌면 최악이라 할 수도 있을 '실천의지의 부재라는 그 상황'에 대한 가정 또한 반드시 수반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상황을 늘 유념한 채 또 다른 비판적 종합을 기다리도록 한다.

【참고문헌】

Althusser, L. & Balibar, É., *Reading Capital*, B. Brewster (tr.), London: New Left Books, 1970.

Barker, C., *Cultural Studies*, 3rd ed., London: SAGE, 2008.

_____, *The SAGE Dictionary of Cultural Studies*, London: SAGE, 2004; 바커, 크리스, 『문화연구사전』, 이경숙·정영희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Norton, A., *95 Theses on. Politics, Culture, and Method*, Yale University Press, 2004; 앤 노튼, 『정치, 문화, 인간을 움직이는 95개 테제』, 오문석 옮김, 엘피, 2010.

Wittgenstein, L., *Philosophical Investigation*, 2nd ed., G. E. M. Anscombe (tr.), London: Blackwell, 1958; 비트겐슈타인, 루트비히, 『철학적 탐구』, 이영철 옮김, 서광사, 1994.

何九盈, 『中國現代語言學史』, 廣東教育出版社, 1995, p.31 — 김중섭, 2001, p.119에서 재인용.

가라타니 고진, 『문자와 국가』, 조영일 옮김, 도서출판b, 2011.

강은진·조재형, 「‘민족’ 개념과 ‘국어’ 개념의 형성 관계에 대한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제28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8.08, pp.27-59.

김중섭, 「현대중국어의 형성과 발전」, 『언어학연구』, 제6호, 한국언어연구학회, 2001.11, pp.117-129.

민현식, 「국어과에서 한자 교육 위상의 재정립 문제」, 『先淸語文』, 제40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12.09, pp.155-207.

박영록, 「중국 한자어 원지음 표기의 문제점」, 『대동문화연구』, 제76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12, pp.557-595.

사이드, 에드워드,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옮김, 개정증보판, 교보문고, 2000.

양세욱, 「근대어 성립에서 번역의 역할 — 중국의 사례」, 『새국어생활』, 제22권 제1호, 국립국어원, 2012. 봄, pp.37-51.

엄익상, 「중국어 외래어를 원지음으로 표기해야할 이유」, 『중국어문학논집』, 제56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9.06, pp.265-279.

원용진, 「보론_포스트콜로니얼리즘」, 『새로 쓴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한나래, 2010, pp.444-473.

이경원, 『검은 역사 하얀 이론: 탈식민주의의 계보와 정체성』, 한길사, 2011.

이글턴, 테리, 『유물론: 니체, 마르크스, 비트겐슈타인, 프로이트의 신체적 유물론』, 전대호 옮김, 갈마바람, 2018.

이지영, 「한국에서의 중국어 독음 표기」, 『한국어의 정체성 보존을 위한 연합학술회의: 언어와 문자, 그리고 소프트파워』 한양대학교 소프트파워인문학연구소 및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HK+한자문명연구사업단, 2018.12.08., pp.4-12.

허재영, 「《우리말 도로 찾기》의 국어 순화 원리」, 『사회언어학』, 제22권 3호, 한국사회언어학회, 2014.12, pp.227-244.

「말터(malteo.korean.go.kr)에서 다듬은 말 전체 목록」, 국립국어원, 2018.12.21, https://publang.korean.go.kr/revise/reviseExhibitionList.do(검색일: 2019.02.10.).

신세계몰, http://www.ssg.com/item/itemView.ssg?itemId=1000017257724(검색일: 2019.02.10.).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中國語當地音表記, 韓國語認同保存, 融合與分岐, 辨證法性關係設定, 文化研究, 言語, 文本, 大衆文化, 後植民主義
	영문	Chinese Written in Chinese Pronunciation, Language Identity Preservation of Korean, Convergence and Divergence, Dialecticising, Cultural Studies, Language, Text, Popular Culture, Postcolonialisms

A Theoretical Approach to and Proposal for the Question on 'Chinese Written in Chinese Pronunciations and the Language Identity Preservation of Korean'
: Based on a Dialectical Analysis of 'Convergence' and 'Divergence'

Jeon, Guk-Jo

To critically synthesize existing or newly posed arguments is the main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humanities in general. Taking it as much as possible, this work hence carries out a theoretical investigation on what approach would be more justifiable to explain some possible interrelation between Chinese written in Chinese pronunciations and the language identity preservation of Korean, and, on the basis of this, what proposal would be more feasible. The predominant methodological framework within which the two abovementioned questions are dealt with is to dialecticis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vergence and divergence. Looking ultimately into the desires of those producing and discussing theories thereby making the contradiction between fixity and fluidity reduced and subsumed to one or the other, the work puts forward another argument. Only if do the theory producers presume that it is the field in which oppressed desires of the public enjoying popular culture and their everyday language lives become liberated, the legitimacy of vectors that the theory producers' desires create can be acquired. Drawing a tentative conclusion as such, the work begins to wait another critical synthesis.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전국조 / 全國鳥 / Jeon, Guk-Jo		
	소 속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Em@il	gukjojeon@daum.net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02월 16일	심 사 일	2019년 02월 21일
	수 정 일	2019년 03월 15일	게재확정일	2019년 03월 22일